



HOME

문화

문화일반

마산합포구 오동동, 벽면 가득 국화 '활짝'

골목서 느끼는 도시재생사업

2018년 03월 28일 (수) | /박혜린기자 | rin@gnynews.co.kr



▲ 마산합포구 오동동 국화 벽화

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(동장 강병곤)은 중성동 족발골목 입구의 노후된 건물 뒷 벽면에 하늘 위로 치솟는 노란 국화로 골목을 환하게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.

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일대는 구 마산의 중심지였다. 지난해 국화축제가 창동 구도심과 어시장 일원에서 개최됨으로써 주변상가에 활기를 불어준 것을 계기로 사계절 볼 수 있는 국화를 벽화 소재로 선택했다.

골목 하나 달리할 뿐 창동예술촌과 등을 붙이고 인접해 있으나 도시재생 선도사업 범위에서 매년 누락되면서 소외감을 느껴오던 참에, 오동동주민센터에서 골목입구 포장공사와

벽화조성, 족발골목 안내간판을 설치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골목 깊숙이 끌어왔다.

70~90년대 수출자유지역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즐겼하고 맛있는 족발과 고갈비를 맛보기 위해 즐겨 찾던 '중성동 족발골목'에 족발집은 이제 세 집만 남아 있지만, 1977년부터 문을 연 일식집 신라초밥을 비롯해 화성갈비, 퓨전일식 와라와라, 커피숍 등 다양한 맛의 연륜을 가진 식당들이 숨어있다.

/박혜린기자 rin@gnynews.co.kr

<저작권자 © 경남연합일보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